

◆ 會員社 動靜 ◆

永新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획득

永新電機工業(株)(代表:任錫基)가 한국품질보증원(KQA)으로 부터 ISO 9002 / KSA9002 품질보증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

영신전기는 그동안 ISO 인증획득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전 사원이 하나가 되어 꾸준한 노력 끝에 이번에 한국품질보증원으로 부터 UPS, AVR, 충전기, 정류기, 폐쇄배전반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전개해온 영신전기는 지난 87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 92년에는 “Q”마크 획득, “전”자를 획득 했으며 '93년에는 품질경영 등급공장(“품”자)으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동사는 이번 ISO 9002 인증획득을 계기로 고객위주의 제품을 생산, 대외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전기업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신전기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자기혁신으로 차단기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도 전력질주하여 명실상부한 전기기기 전문업체로 성장 발전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

現代重工業(株), 리비아 大水路工事用 전장품 공급계약 체결

現代重工業(株) 중전기사업본부는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에 소요될 전력 제어장치(POWER CONTROL UNIT) 484Stes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영국의 HAWKER SIDDELEY, ELEQUIP 및 이태리의 EUDOSIA 등 6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끝에 지난 3월 최종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최근 미화 3천만불에 계약체결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분할 납품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POWER CONTROL UNIT는 지하수를 PUMPING하는데 필요한 전력공급 및 제어장치로서 3.3kV MCC와 PLC PANEL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제품의 옥외 HOUSING설비는 냉매를 이용하여 외부의 전원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PASSIVE COOLING SYSTEM을 적용한 최첨단 장비로서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악조건속에서 무인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다.

현대중공업(주)은 이번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진행될 3단계공사용 전력제어장치 (POWER CONTROL UNIT)의 수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G産電(株), 초강력 디스크 그라인더 개발

LG産電(株)(代表:李喜鍾)는 국내 전동공구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초강력 100mm 디스크 그라인더를 최근 개발완료하고 본격 출시한다.

지난 1년 동안 3억원을 투자해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이 제품은 최대출력 900W 급의 초강력 파워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작업능력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수명을 기존제품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획기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파워 및 수명을 모두 만족시켰다.

또한, 작업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방진용 특수베어링을 채택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특수 팬(FAN)을 사용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몸체의 온도를 기존제품의 절반 가까이 낮추었고, 손잡이 크기가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는 등 전체적으로 작업이 훨씬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국내 최초로 부품의 공용화를 실현하여 타제품과의 소모성 부품의 상호 호환성을 가능케 해 작업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다.

한편 LG産電은 우수한 제품-시장전략-대량 생산체제 구축으로 시장 공략제품인 100mm 디스크 그라인더에서만 금년도 55억, 내년도 1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 전동공구 시장에서의 1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갖추었다.

디스크 그라인더는 조선, 중공업, 철구조물 업체 등에서 석재, 철판 등의 연마·연삭 및 절단 작업에 쓰이는 전동공구로 올해 시장규모는 170억 정도로 예상되며 수요가 년 15%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전동공구 시장의 핵심제품이다. 따라서 이번 LG産電의 신제품의 출시됨으로써 최대출력 600W급이 주류를 이루었던 기존의 그라인더 시장에 일대 변혁과 해외 사업도 더욱 강화하여 기존의 동남아 시장은 물론 더욱 고급화된 품질로 일본, 유럽, 미주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株)光明電機, 판금전문 2공장 건설

(株)光明電機(代表:張淳明)가 시화공단에 제2공장을 건설한다.

동사는 40억원을 투입, 시화공단 2천5백평부지에 건평 7백여평규모의 판금전문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오는 7월 착공키로 했다.

오는 10월 완공,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이 공장은 독일의 베렌社로부터 들여올 판금자동화설비를 갖추어 철판가공능력이 월 2백50t에서 월 5백t으로 증가돼 품질향상과 함께 수배전반 MCC(모터 컨트롤센터)가스절연개폐장치 계전기및 제어반등 각종 중전기부품의 생산능력이 배로 늘어나게됐다.

광명전기는 시화공단의 제2공장건설로 기존 반월 공장은 배선공장으로, 제2공장은 판금자동화공장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생산성제고를 꾀할수 있게 됐다.

지난해 ISO 9001인증을 획득한 동사는 올 2월부터는 울진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수배전반을 납품해 오고 있으며 日本미쓰비시社에 수배전반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수출해온데 이어 최근 도시바社와 수배전반의 수출계약을 맺고 이달말 첫선적한다.

三星航空産業(株), 산업용 소형 가스터빈 발전설비 국산화

三星航空産業(株)(代表:李大遠)는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발전설비 생산에 참여,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이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삼성항공은 이에 따라 내년 개장예정인 용인자연농원내 워터파크에 3천KW급 열병합용 가스터빈발전설비를 공급키로 하고 오는 11월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 설비는 기존의 디젤엔진에 비해 진동 및 소음이 적고 초경량이며 안정된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설치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공해배출량을 1/10이하로 낮춰 국제그린라운드(GR)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항공은 그동안 항공기엔진생산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통상산업부 및 과기처 지원으로 1천2백KW급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설계를 지난해말 완료했으며 올해말까지 부품및 완제품을 생산, 97년부터는 독자모델을 시판할 계획이다.

소형가스터빈발전설비는 대형 오피스빌딩·병원·호텔·은행·산업체 등의 정전대비 비상용 및 하절기 과부하해소용으로 사용되며 발전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냉난방이 가능한 열병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이다.

현재 산업용 소형가스터빈의 세계시장규모는 3천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日가와사키중공업이 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삼성항공은 지난해 7월 日가와사키중공업·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1백50달러 △3천6백KW급 5기종을 비롯 1천5백달러 △6천KW급 설비를 국내에서 독점생산및 판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韓一電線(株), 沃川공장 가동

韓一電線(株)(代表: 卞先浩)는 沃川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동사는 지난해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약 1년 6개월만에 준공을 본 옥천공장은 대지 2만평, 건평 8천평 규모로 앞으로 전력, 통신, 기기선 등 모든 전선류를 생산하는 종합전선메이커로 부상케 됐다.

한일전선이 경기 화성 공장에서 충북 옥천공장으로 이전하는데 들어간 투자규모는 설비부문 1백억원을 포함 총 2백 50여억원 으로 공장규모는 종전보다 4배, 생산량 증가와 확장·이전으로 올해 총 매출을 지난해 4백 65억원 보 2백억 이상을 늘려감은 7백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 신규 회원 가입 ◆

업체명	대표자	주 소	TEL	주 요 생 산 품 목
(주)인남	이장현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7-13	385-3392	절전기, 가로등제어장치, 조명제어장치
신성사	김용관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춘의동 155-3	(032)611-3645	전기온도휴즈, 전기브레이크 부품, 전기경광등
(주)파워시스	한재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83-5	(032)684-2939	UPS·AVR, 50/60 주파수 변환기, 자동전압충전기
(주)서오기전	김성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97-5(예화빌딩2층)	578-7333	MAGNET CATCH, 계전기류